

# 가계의 부채부담과 관련요인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Debt Burden and its Determinants of Urban Households

인천대학교 가정관리학과

전임강사 : 成 英 愛

*Dept. of Home Management*

*Inchon University*

*Instructor : Young-Ae, Sung*

고려대학교 가정교육과

강사 : 梁 世 貞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Korea University*

*Lecturer : Se-Jeong, Yang*

본 연구는 우리나라 도시가계의 부채보유여부 및 부채부담의 관련요인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분석을 위하여 국민은행이 실시한 1990년도 가계금융이용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였다. 부채보유여부의 관련요인분석을 위하여 로짓분석을 사용하였으며, 월평균가계소득에 대한 월평균부채상환액의 비율로 측정된 부채부담에 대한 관련요인의 분석을 위하여는 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도시가계의 부채보유비율은 38.2%였고, 부채를 보유할 확률은 가계소득, 금융자산, 주택소유여부, 가구주 연령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2) 부채보유가구의 평균부채부담율은 33.99%였고, 부채부담은 가계소득, 금융자산, 부채원 수, 가구주 직업 및 거주지역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I. 서 론

일반적인 가계는 가정생활주기단계에 따라 또는 가계가 처하고 있는 특정상황에 따라 소득과 소비간의 불균형상태를 경험한다. 이러한 불균형은 저축 또는 차용이라는 경제활동을 통하여 그 격차를 조절함으로써 가구원의 복지향상을 꾀할 수 있다. 즉, 제한된 소득 또는 자원을 현재의 소비를 위해 쓸 것인가, 미래에 쓸 것인가, 또는 미래의 소득을 예측하여 미래소득을 현재의 소비를 위해 쓸 것인가, 미래에 쓰도록 유보시킬 것인가 하는 등의 끊임없는 의사결정을 하며, 이러한 의사결정에 따라 가계의 소비행동, 저축행동 및 차용행동의 특성이 나타나게 된다. 특히 차용행동은 가계의 현재 구매력을 증가시킴으로써

특정상황하에서 일정생활수준의 영위를 가능하게 함과 동시에 가계의 장기적 재정계획수립 및 수행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더한다.

이렇듯 차용행동은 장기간에 걸친 자원의 합리적 운영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바람직한 행동으로 파악될 수 있다. 즉, 차용행동을 통해 획득된 부채는 가계의 유용한 경제적 자원으로 이용되어 가계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심 영, 1993). 이러한 점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은행으로 부터 부채를 지고 있는 계층을 수혜계층으로 파악하기도 한다(김중수 등, 1985).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부채는 일종의 고정지출항목의 역할을 함으로써 가계에 경제적 부담을 가져올 수 있으며 소비패턴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어느 수준 이상이 되면 가계복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심 영, 1993). 이에 부채문제를 다루는 대부분의 상담가들은 가계는 지불능력한도내에서 차용행동을 하여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으며, Hira(1990)는 구체적으로 월소득 중 부채상환에 이용되는 금액의 비율이 20%를 넘는 경우 가계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인 바 있다. 또한 부채부담은 소비자파산과도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어(Shephard, 1984) 부채부담이 가정경제에 부정적인 면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해준다.

현대사회는 신용사회라 칭할 만큼 차용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위치를 점하며 가계의 부채이용이 증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의 경우 가계의 부채부담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도 그 규모 면에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1980년에 가구당 부채보유액이 744,000원에서 1992년에는 2,940,000원으로 4배에 가까운 수치를 보이고 있다. 또한 구조 면에서도 사채, 계통의 私부채이용 위주의 패턴에서 주택관련대출등을 포함한 금융기관을 통한 부채이용으로 급변하는 추세이다(양세정·강미나, 1993).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저축행동에 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김순미, 1987; 문숙재, 1985; 백설희, 1984등), 가계의 차용행동 또는 그로 인한 부채부담에 관한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도시가계의 부채부담정도와 이와 관련된 변수들을 찾아냄으로써, 도시가계의 경제적 복지상태를 추정함과 동시에 부채와 관련된 재무상담 및 교육프로그램에 유용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가계의 부채부담은 두 단계로 파악될 수 있는데, 먼저 부채부담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과 두번째로 부채를 보유한다면 어느 정도의 부채부담을 가지느냐의 단계가 그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다루게 될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도시가계의 부채보유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연구문제 2〉 도시가계/부채보유가계의 평균부채부담은 어느 정도인가?

〈연구문제 3〉 부채보유가계의 부채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 II. 이론적 배경

### 1. 부채부담의 측정

가계의 부채부담은 다양한 방법으로 측정되어왔다. 가장 간단하게는 가계부채의 절대액의 규모를 부채부담정도로 평가하는 방법이 있다. 예를 들어 심 영(1993)의 경우 각 가계의 부채액수를 전체평균부채액과 비교함으로써 부채부담이 적은 가계와 많은 가계로 二分한 바 있다. 일부 학자들은 가계의 총자산에 대한 부채액의 비율로써 부채부담을 측정하는가 하면(Bailard 등, 1986), 금융자산과 부채액의 비교를 통해 측정하기도 하나(Gitman, 1984; Griffith, 1985; Langrehr & Langrehr, 1989에서 재인용), 이러한 측정방법은 위급시의 부채상환능력에 더욱 적합한 개념으로 이용된다.

부채부담의 보다 적합한 측정방법은 일정기간 가계에 들어오는 소득에 대한 부채의 비율이라 할 수 있다. 이는 가계의 경우 當該소득에 근거하여 경제적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이다. Sullivan & Worden(1986)은 年가계소득에서 총부채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부채부담을 측정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 방법은 일반적 가계의 경우 1년내에 모든 부채를 갚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이보다는 월평균가계소득에서 부채상환에 매월 불입되어야 하는 금액의 비율로 나타내는 방법이 더욱 적합한 것으로 인식된다(Sullivan & Worden, 1986; Hira, 199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계의 부채부담정도를 월평균가계소득에 대한 월평균부채상환액의 비율로 측정하였다.

### 2. 관련연구의 고찰

가계의 부채부담에 관한 연구는 최근 활발하게 진행되어왔다. Avery등(1987)과 Kennickell & Schack-Marquez(1992)는 미국가정의 부채보유상태에 관한 포괄적 자료를 기술통계기법을 사용하여 정리하였다. Avery등의 연구에 의하면 미국가정의 경우 1970년에서 1986년으로 오면서 부채보유가구의 비율이 약간씩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70년 당시 가구의 52.6%가 부채를 보유하고 있던 것에 반해 1986년에는

58.5%의 보유율을 보였다. 1986년 자료를 살펴보면 소득대비 월평균 부채상환금이 30% 이상인 過부채 부담집단의 수는 2.7%로 적은 편이었으나 이 집단의 특성을 살펴보았을 때 저소득층 및 노인소비자가 많이 편중되어 있음을 보였다.

Kennickell & Shack-Marquez의 연구에 의하면 1989년의 경우 조사가구의 72.7%가 부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특히 가족소득이 많을수록, 가구주의 나이가 젊을수록, 가구주가 백인인 경우, 주택을 소유한 가구의 경우 부채보유율이 보다 높았다. 한편 부채부담이 큰 가계의 특성을 살펴보면 저소득층 및 무주택 소유가구의 경우가 많았으며 자산규모와 부채부담과의 관계는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가계재무관리분야의 학자들은 주로 정부의 가계 재정조사자료를 사용하여 가계의 부채이용행태에 관하여 다양한 통계기법을 적용, 분석함으로써 가계부채에 관한 이해를 돕는데 기여하였다. Sullivan & Worden (1986)은 부채이용확률 및 부채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수를 규명함에 있어 포괄적인 모델을 검증하였다. 그들은 부채이용정도가 소비함수에서 도출된 간접함수로서 표현될 수 있다고 보고, 소비와 관련된 인구통계학적 변수, 재정관련 변수, 태도변수 및 시장상황변수가 부채변수들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1983년의 미국전국가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부채이용확률은 젊은수록,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높았고, 주택저당이 있는 경우, 맞벌이를 하는 경우에도 그렇지 않은 가구에 비해 부채이용확률이 높았다. 또한 가정생활주기, 상대소득 및 연간가계소득, 유동자산, 신용에 대한 태도도 가계의 부채이용확률에 대해 有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소득에 대한 부채지불액의 비율로 측정된 부채부담의 경우 가구원수와 양(+)의 상관관계를 보인 반면, 소득수준 및 상대소득과는 음(-)의 상관관계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생활주기가 부채부담에 미치는 영향도 커서 은퇴한 노인가계 또는 편부모가계의 경우 다른 가계에 비해 부채부담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신용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가지는 경우 부채부담이 높았다. 반면 가계의 유동자산의 규모나 맞벌이여부등의 변수는 부채부담과 有의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Marlowe & Godwin(1988)은 농가가계의 부채/자산비율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규명하였다. 미국 7개 주에서 추출된 489농가의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농업에 종사하는 연수가 많을수록 가계의 부채비율은 낮게 나타난 반면 가구주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부채비율은 높았다. 또한 가계소득은 부채/자산의 비율과 곡선적 관계, 즉 낮은 소득과 높은 소득의 농가가계가 중간수준의 가계에 비해 더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Hira(1990)는 부채문제에 상담까지 하게 된 문제 가정을 대상으로 부채부담을 조사하였다. 1984년에서 1987년동안에 상담한 스코트랜드가정의 경우 부채액이 가계 연소득의 44%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부채액이 연소득을 초과하는 가정의 경우도 2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총부채량에 대해 가족수, 혼인상태, 취업여부, 부채源의 수가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혼인상태를 뺀 모든 변수가 有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발견하였으며, 특히 부채源의 수는 총부채규모에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Yu(1993)는 자산대비 부채비율을 부채부담으로 측정하여 이에 대한 사회경제적 관련변인을 규명하였다. 1983년 Survey of Consumer Finance자료를 사용한 결과 가족수가 많을수록, 가구주 연령이 낮을수록 부채부담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구주가 남자이거나 유색인종인 가구도 그렇지 않은 가구에 비해 부채부담이 컸다. 반면, 가족소득이나 가구주 교육수준의 경우 절대부채량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으나 동시에 절대자산량과도 양(+)의 상관관계가 있어 이들의 비율로 측정된 부채부담과는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구주의 직업유형도 가계의 부채부담에 有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가계부채부담과 관련된 우리나라 연구로는 김중수 등(1985)이 1983년 주택은행 용자가구 서베이를 이용, 조사한 것이 있다. 주택용자를 받은 가정을 대상으로 가계월평균소득에 대한 주택관련부채의 월상환액간의 비율을 계산한 결과 16.0%로 추정되었다. 이 연구의 주요주체가 주택금융이용행태분석인 만큼 이외에 가계부채부담에 관한 더 이상의 연구결과는 주어지지 않았다.

### III. 연구방법

#### 1. 연구모형

가계는 현재소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부채를 사용하며, 이러한 부채사용은 미래소득을 현재시점에서 소비하는 의사결정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부채에 대한 수요는 일반적인 소비함수에 근거하여 도출할 수 있다. 현재소비와 미래소비간의 의사결정을 분석한 기간간 선택이론에 의하면 어느 시점에서의 소비는 소득, 이자율, 가격변동 및 가계선택의 함수로 표현된다(Bryant, 1990).

$$C=f(Y, r, P, T\&P) \quad (1)$$

(C : 소비, Y : 소득, r : 이자율, P : 가격변동, T&P : 가계선택)

이때 이자율 및 가격변동은 일정 시점에서 조사되어지는 횡단면자료분석의 경우 일정하다고 가정할 수 있으며, 지역등에 따른 다소의 변동은 가계특성변수에 의해 간접적으로 측정될 수 있다(Bryant, 1986). 결국 가계부채는 가계소득 및 가계선택에 의한 함수형태로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D=g(Y, T\&P) \quad (2)$$

본 연구에서는 구매력을 나타내는 소득변수를 단순히 현재소득을 반영하는 협의의 소득개념이 아니라, 생애주기가설에 근거하여 자산의 개념으로 확대한 광의의 개념을 사용하였다(Bryant, 1990). 가계소득 뿐 아니라 자산도 현재소비를 위한 구매력을 지닌다고 보았으며, 따라서 가계부채에 대한 수요 역시 가계소득 및 자산에 의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았다.

부채에 대한 가계선택은 현재소비에 대한 시간선택을 반영한다. 자원과 소비간의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시점에서 가계는 차입을 통하여 자원을 재분배하는 작업의 필요성을 느끼며, 이러한 부채동기는 가계의 소비필요성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예를 들어 가정생활주기상 지출이 소득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주택마련을 위해 은행대출을 받은 경우등이 이에 해당된다. 한편 가구의 선호가 미래소비에 비해 현재소비에 대한 지향성향이 강한 경우에도 부채부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가계선택은 가계의 특성변수에 의해 대변되어진다.

또한 개인의 부채에 대한 태도여부가 부채사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됨에 따라 연구모형에 포함시켰다. 이는 넓은 의미에서 가계특성변수에 포함될 수도 있겠으나 부채행위에 대해 간접적으로 선택을 반영하는 가계의 인구통계학적 변수와는 성격이 다른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분리하였다. 즉 가계특성변수를 인구통계학적 변수와 태도변수로 나누었는데, 이러한 연구모형은 Sullivan & Worden(1986)의 연구에 근거하고 있다. 결국 (2)식은 보다 구체화된 형태로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부채보유여부 또는 부채부담

$$=g(\text{소득 및 자산관련변수, 인구통계학적 특성변수, 부채관련 태도변수}) \quad (3)$$

본 연구의 모형인 (3)을 근거로 본 연구에서 사용되어질 구체적인 변수는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소득 및 자산관련변수로는 가계소득 및 금융자산을 사용하였으며, 실물자산이면서 동시에 주택관련부채보유가능성을 대변할 주택소유여부변수를 포함하였다. 또한 자산운영의 안정성 정도를 나타내기 위하여 취업자수와 부채源의 수를 사용하였는데 이들 변수들은 Sullivan & Worden(1986)의 연구에서 부채사용에 대해 유의한 관련변인으로 검증된 바 있었다.

가계의 인구통계학적 변수로는 가구주의 성별, 연령, 교육수준, 직업, 거주지역, 가구원수가 사용되었으며, 부채관련 태도변수는 본 연구에 사용되어진 원자료가 포함하고 있는 신용카드에 대한 태도 및 할부판매금융에 대한 태도변수로 대응하였다<sup>1)</sup>.

#### 2. 자료

본 연구를 위하여 국민은행의 1990년도 '가계금융이용실태'의 기초자료가 사용되었다. 이 자료는 전국의 40개 지역의 가구를 조사대상으로 하여 총화3

1) 연구에 사용된 원자료에는 부채태도를 묻는 자료가 없으며, 유사변수로 신용카드에 대한 태도 및 할부판매금융에 대한 태도변수를 포함하고 있다. 신용카드대금의 할부납부가 일반화되어있는 만큼 이들 두 변수는 Revolving Credit으로서의 의미를 지닌다고 판단됨에 따라 부채에 관한 태도를 간접적으로 반영할 것으로 생각되어 본 연구모형에 포함하였다.

단계통추출방법에 의해 표본을 추출하였으며, 면접을 통하여 가계의 금융자산 및 부채보유현황에 관한 정보를 수집한 것이다. 原자료의 조사대상은 3,000가구였으나 부실한 자료를 제외한 2,976가구를 본 연구의 최종 연구대상으로 사용하였다.

### 3. 분석방법 및 변수

본 연구의 분석방법은 크게 두 단계이다. 먼저 가계의 부채보유여부와 관련된 관련요인을 분석하고, 다음 단계로 부채보유가구만을 대상으로 부채부담에 관한 관련요인을 분석한다.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가계의 부채보유여부 및 부채부담이다. 부채보유여부는 가계가 어떤 형태이건 부채가 있는 경우를 부채사용가계로 보았다. 한편 부채부담은 월평균부채상환액이 월평균가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측정하였다. 이때 부채의 범주는 은행, 증권 및 보험회사, 신용협동기구, 상호신용금고에서 대출한 금액, 사채쓴 금액 및 계탄 금액을 포함하였다.

독립변수인 가구주 성별, 연령, 교육수준, 직업, 거주지역, 주택소유여부와 신용카드 및 할부판매금융에 대한 태도는 가변수로 처리하였으며, 가구원수, 가계소득, 금융자산 및 부채源 수는 연속변수로 사용하였다. 가구주 연령변수는 이론적으로 가계부채의 주요한 변인인 가정생활주기를 대변하기 위하여 사용함에 따라 연령계층을 10년단위로 묶어 계층별 가계부담정도를 비교하였다. 주택소유여부의 경우 原자료상에는 주택소유구분이 보다 다양하였으나 본 연구모형에 맞게 自家와 他家로 二分하여 사용하였다. 기타 假변수의 범주는 원자료의 형태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한편 가계소득변수의 경우 가계소득 및 가계소득의 제곱의 두 변수를 연구모형에 투입하였는데 이는 가계부채부담과 가계소득간의 관계가 선행연구에서도 살펴보았듯이 非선형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금융자산은 은행, 투자신탁, 증권 및 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 단자회사, 신용협동기구, 상호신용금고, 우체국에 예치해둔 금액과 유가증권, 계불입금액 및 기타를 조사하여 합한 값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통계기법으로는 가계의 부채보유여부에 대한 관련요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로짓분

석을 사용하였다. 로짓분석의 사용은 본 경우에서처럼 종속변수가 이항변수인 경우 회귀분석에 비해 신뢰도가 높다. 또한 부채부담에 관한 관련요인의 규명을 위하여는 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들 다변량분석을 위하여 독립변수들간의 상관관계를 사전적으로 검증하였다. 모든 분석은 SPSSPC+를 이용하여 수행하였다.

## IV. 연구결과

###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표 1은 조사대상가계를 부채보유여부에 따라 나누었을 때의 가계특성을 요약한 것이다. 조사대상인 2,976가계의 38.2%가 부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가계의 월평균가계소득은 809,677원이었고, 부채보유가계가 부채未보유가계에 비해 가계소득이 다소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금융자산의 경우 부채보유가계가 평균 615만원으로 672만원인 부채未보유가계에 비해 적었다. 조사대상가구의 주택보유율은 45.7%였는데, 부채未보유가계의 보유율은 49.3%로 부채보유가계의 40.0%와 차이를 보였다.

전체가계의 91.1%가 남자가구주 가계였으며, 가구주의 평균연령은 42.02세로 이들의 절반이상이 봉급생활자였다. 또한 가구주의 64.9%가 중·고졸이 하이고 대졸이상은 24.3%였다. 신용카드에 대한 태도에 있어 46.8%가 긍정적이었으며, 할부판매금융에 대한 태도도 비슷한 비율인 44.6%의 긍정율을 나타냈다.

### 2. 도시가계의 부채보유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표 2는 부채보유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히기 위한 로짓분석의 결과이다. 전반적인 연구모형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략적으로 살펴볼 때 부채보유여부에 대해 소득 및 자산관련변수의 영향력이 두드러졌으며, 그 밖에 가구주 연령 및 거주지역의 차이가 부채보유여부와 유의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및 자산관련변수에서는 가계소득, 금융자산, 주택소유여부등이 가계의 부채보유확률에 유의미한

표 1. 부채보유여부에 따른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단위: %)

변수구분	전체가계		
	부채보유가계	부채未보유가계	
가계數 (%)	2,976 (100.0)	1,138 (38.2)	1,838 (61.8)
월평균가계소득 (원)	809,677	858,623	779,323
금융자산 (원)	6,501,248	6,149,402	6,719,093
취업자수 (명)	1.32	1.35	1.30
주택소유여부: 自家	45.7	40.0	49.3
부채源 수 (개)	0.44	1.16	0.00
가구주 성별: 남자	91.1	92.1	90.5
가구주 연령: 평균(세)	42.02	41.8	42.11
-30세 미만	8.5	6.4	9.8
30-40세 미만	37.2	38.8	36.2
40-50세 미만	30.0	32.0	28.8
50-60세 미만	18.4	18.0	18.7
60세 이상	5.8	4.8	6.5
가구주 교육수준: 국졸이하	10.8	10.2	11.1
중·고졸	64.9	63.3	65.9
대졸이상	24.3	26.5	23.0
가구주 직업: 봉급생활자	51.7	51.2	52.0
일용근로자	8.7	8.1	9.1
자유직업자	5.1	5.7	4.7
자영업자	31.3	33.0	30.3
기 타	3.2	1.9	3.9
거주지역: 서울특별시	34.4	32.7	35.5
직할시	31.1	30.1	31.7
중소도시	34.5	37.2	32.8
가구원수(명)	4.20	4.30	4.14
신용카드에 대한 태도: 긍정적	46.8	48.7	45.6
할부판매금융에 대한 태도: 긍정적	44.6	44.7	44.5

영향을 미쳤다. 가계소득변수와 가계소득제곱의 변수 모두 가계부채보유여부와 유의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회귀계수의 부호에 의하면 가계소득이 증가할수록 부채를 보유할 확률은 점차 증가하다가 (증가율은 감소) 어느 수준에 이르면 다시 감소하는 관계였다. 이러한 결과는 저소득층이 담보 및 신용부족등 용자요건의 부족으로 인하여 가계대출의 기회가 적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되며, 이는 소득과 부채보유여부와는 무관한 미국연구의 결과(Sullivan & Wordern, 1986)와 대비된다. 반면 환금성이 높은 금융자산과 부채보유확률간에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주택을 소유한 가계는 그렇지 않은 가계보다

부채를 보유할 확률이 더 높았다. 이러한 현상은 自家가계의 경우 주택구매와 관련한 주택자금대출을 하고 있는 경우가 포함되어있을 것으로 판단되며<sup>2)</sup>, 한편으로는 가계대출의 많은 경우가 부동산담보를 요구함에 따라 自家가계의 대출이 무주택소유가계보다 용이하기때문으로 사료된다.

고려된 인구통계학적 특성변수 중에서 가구주 연령이 부채보유여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2) 1992년 도시가계금융이용실태조사에 따르면 가계 부채보유액의 57.6%가 주택관련자금이었으며, 은행대출의 경우 70.5%가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양세정·강미나, 1993).

표 2. 부채보유여부에 대한 로짓분석 결과

독립변수	회귀계수	표준오차	Significance
<b>소득 및 자산관련변수</b>			
가계소득	0.001***	0.0002	0.000
가계소득제곱	-1.5E-7*	6.2E-8	0.017
금융자산	-1.2E-5**	4.0E-6	0.002
취업자수	0.020	0.071	0.784
주택소유여부：自家=1	0.341***	0.087	0.000
<b>인구통계학적 변수</b>			
가구주 성별：남자=1	0.012	0.146	0.935
가구주 연령(비교집단：30세 미만)			
30-40세 미만	0.422**	0.157	0.007
40-50세 미만	0.321	0.166	0.054
50-60세 미만	0.107	0.178	0.548
60세 미만	0.123	0.239	0.607
가구주 교육수준(비교집단：국졸이하)			
중·고졸	-0.124	0.140	0.373
대졸이상	-0.064	0.165	0.699
가구주 직업(비교집단：봉급생활자)			
일용근로자	0.104	0.154	0.499
자유직업자	0.247	0.178	0.167
자영업자	0.091	0.092	0.323
기 타	-0.500	0.281	0.075
거주지역(비교집단：중소도시)			
서울특별시	-0.272**	0.094	0.004
직할시	-0.173	0.096	0.069
가구원수	0.004	0.037	0.925
<b>부채관련 태도변수</b>			
신용카드에 대한 태도：긍정적=1	0.051	0.081	0.525
할부판매금융에 대한 태도：긍정적=1	-0.016	0.080	0.840
상수항	-1.321***	0.257	0.000
-2 Log Likelihood $\chi^2$	3,860.595***		
Significance	0.000		

\*P≤0.05, \*\*P≤0.01, \*\*\*P≤0.001에서 통계적으로 有意

나타났다. 가구주 연령이 30세 미만인 가계에 비해 가정생활주기상 自家마련시기인 30~40세 가구주 가계가 부채를 보유할 확률이 더 높았다. 거주지역도 부채보유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는데, 중소도시 거주 가계에 비해 서울시 거주 가계의 부채보유확률이 낮았다.

한편, 부채관련태도변수는 부채보유여부와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미국소비자들의 경우와 상반된 것으로(Sullivan & Wordern, 1986)<sup>3)</sup> 이는

미국가계들이 부채사용여부를 선호도에 의해 선택할 수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아직 원활한 부채시장을 가지지 못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가구주 성별, 교육수준 및 직업, 가구원수등 가계의 인구통계학적 특성변수는 가계의 부채보유여부에 有

3) 이들의 연구에서는 신용에 대한 태도를 긍정적, 보통, 부정적 3가지로 나누어 조사하였으며, 분석 결과 신용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가계의 부채보유확률이 타집단에 비해 컸다.

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계의 취업자수가 많음에 따라 가계소득의 안정도가 증가하며 결국 가계의 부채보유확률을 높일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분석결과 유의미한 변수가 아니었다.

### 3. 가계특성에 따른 월평균부채부담

표 3은 도시가계의 월평균부채부담을 제시한다. 전체 도시가계의 평균총부채액은 200만 2,554원이었으며, 부채보유가계만을 대상으로 살펴보았을 때는 가계당 평균 523만 6,090원의 총부채를 보유하고 있었다. 평균총부채액을 부채상환기간으로 나눈 월평균부채상환액은 전체도시가계는 평균 93,748원이었고 부채보유가계의 평균은 245,162원이었다.

가계부채부담을 월평균부채상환액이 월평균가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측정해 본 결과, 전체가계의 경우 매월 소득의 13.0%를 부채상환에 지출하고 있었다. 부채부담률 20%를 넘는 가계가 전체가계의 17.0%였으며, 특히 부채부담이 소득의 50%를 넘는 가계도 6.8%나 차지하였다. 미국의 경우 부채보유비율은 본 연구에서 조사된 수치보다 훨씬 높은 58.5%이나, 부채부담이 30%를 상회하는 가구비율이 2.7%에 불과하여 대조를 이룬다.

부채보유가계만을 보면 월평균소득대비 월평균부채상환액의 비율이 33.99%로 매월소득의 1/3이상을 부채상환에 사용하였다. 부채부담의 분포를 살펴보면 부채부담이 20%미만으로 나타난 가계는 부채보유가계의 55.5%였고, 나머지 45.5%는 부채부담률이 20

%를 넘고 있다.

연구모형에서 제시한 독립변수들의 구분에 따른 월평균부채부담을 비교하기 위하여 t검증 또는 일원 분산분석을 하였다(표 4). 전체가계를 대상으로 하였을 때, 가구주 직업, 가계소득, 취업자수 및 부채원수가 달라짐에 따라 가계의 부채부담의 크기가 통계적으로 유의할 만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구주 직업의 경우 안정된 소득원으로 장기적 가계재정계획수립 및 실행이 용이한 봉급생활자 가계의 경우 부채부담율이 9.84%로 he 직업군에 비해 현저히 낮게 나타났다. 한편 부채원수가 많아지면서 가계부채부담이 커짐을 보였는데 특히 부채원이 3개 이상인 경우(현 조사대상가구중 20가구) 가계부채상환액이 월평균가계소득을 상회함으로써(부채부담 107.83) 가계재정관리의 불능상태임을 시사하였다.

부채보유가계만을 분석대상으로 했을 때는 가계소득, 금융자산, 취업자수, 부채원수, 가구주 성별, 교육수준 및 직업이 부채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 취업자수 및 가구주 교육수준은 가계소득과 직, 간접적 관련이 있는 변수로 취업자가 적고, 가구주의 교육수준이 낮은 가계처럼 소득이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집단의 경우 가계부채부담이 컸다. 월평균가계소득이 50만원이하인 경우 부채부담은 54.25%에 이르러 극심한 재정불균형상태를 보여준다.

### 4. 도시가계의 부채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표 5는 부채보유가계만을 대상으로 다른 변수들의

표 3. 총부채액, 월평균부채상환액 및 월평균부채부담

구 분		전 체 가 계	부채보유가계
총부채액 (A)		2,002,554원	5,236,909원
월평균부채상환액 (B=A/부채상환기간)		93,748원	245,162원
월평균부채부담 : (평균)		13.00%	33.99%
(B/월평균가계소득×100)			
	(구성분포)	가구수(%)	가구수(%)
	0%	1,838 (61.8)	0 (0.0)
	-10%	376 (12.6)	376 (33.0)
	-20%	256 (8.6)	256 (22.5)
	-30%	158 (5.3)	158 (13.9)
	-40%	93 (3.1)	93 (8.2)
	-50%	54 (1.8)	54 (4.7)
	50% 이상	191 (6.8)	191 (17.7)
	합 계	2,976(100.0)	1,138(100.0)



표 4. 가계특성에 따른 월평균부채부담

(단위 : %)

변 수	구 분	전체 가계		부채보유가계	
		평 균	t/F값	평 균	t/F값
가계소득 :	- 50만	16.66	5.47**	54.25	22.60***
	- 100만	11.56		28.69	
	- 150만	11.74		24.55	
	151만 이상	7.86		18.38	
금융자산 :	- 250만	13.66	0.30	39.31	2.95*
	- 500만	12.34		29.84	
	- 1000만	12.81		29.23	
	1000만 이상	12.25		33.13	
취업자수 : 0명	1명	12.96	2.70	66.00	6.73***
	2명	13.93		37.40	
	3명	11.59		26.71	
	3명 이상	6.25		16.84	
주택소유여부 : 自家	기타	14.02	1.71	33.12	0.70
		11.79		35.28	
부채源 수 : 0개	1개	0.00	354.25***	-	39.04***
	2개	29.42		29.42	
	3개	55.35		55.35	
	3개 이상	107.83		107.83	
가구주 성별 : 남자	여자	12.71	1.32	32.88	2.40*
		15.93		46.91	
가구주 연령 :	- 30세 미만	9.26	2.11	32.02	2.18
	30-40세 미만	13.30		33.38	
	40-50세 미만	14.65		35.94	
	50-60세 미만	10.52		28.18	
	60세 이상	15.83		50.07	
가구주 교육수준 : 국졸이하	중 · 고졸	15.46	1.13	42.65	3.58*
	대졸이상	13.02		34.94	
		11.84		28.39	
가구주 직업 : 봉급생활자	일용근로자	9.84	6.37***	25.97	9.93***
	자유직업자	16.31		45.92	
	자영업자	18.17		42.49	
	기 타	16.03		39.73	
		17.17		73.37	
거주지역 : 서울특별시	직할시	13.80	2.03	38.03	2.32
	기타중소도시	11.03		29.75	
		13.96		33.87	
가구원수 : 2명	3명	12.99	0.62	46.54	1.46
	4명	12.22		34.85	
	5명	12.56		32.04	
	6명	14.93		36.25	
	6명 이상	12.29		29.92	
신용카드에 대한 태도 : 긍정적	부정적	12.91	0.13	32.36	0.98
		13.07		35.44	
할부판매금융에 대한 태도 : 긍정적	부정적	13.87	1.18	36.12	1.25
		12.30		32.26	

\*P<0.05 \*\*P<0.01 \*\*\*P<0.001에서 통계적으로 有意.

표 5. 부채보유가계의 부채부담에 대한 회귀분석결과

독립변수	표준화된		
	회귀계수	회귀계수	t값
<u>소득 및 자산관련변수</u>			
가계소득	-5.08E-04***	-0.516	-6.404
가계소득제공	7.57E-08***	0.274	3.727
금융자산	3.74E-06*	0.077	2.414
취업자수	-0.017	-0.021	-0.638
주택소유여부: 自家=1	0.010	0.019	0.317
부채原 수	0.312***	0.252	8.963
<u>인구통계학적 변수</u>			
가구주 성별: 남자=1	-0.061	-0.032	-1.082
가구주 연령(비교집단: 30세미만)			
30-40세 미만	-0.021	-0.020	-0.341
40-50세 미만	-0.008	-0.007	-0.123
50-60세 미만	-0.059	-0.044	-0.859
60세 이상	0.046	0.019	0.495
가구주 교육수준(비교집단: 국졸이하)			
중·고졸	-0.017	-0.016	-0.323
대졸이상	0.040	0.034	0.664
가구주 직업(비교집단: 봉급생활자)			
일용근로자	0.144*	0.076	2.488
자유직업자	0.156*	0.070	2.467
자영업자	0.163***	0.150	4.769
기 타	0.323**	0.087	2.832
거주지역(비교집단: 중소도시)			
서울특별시	0.079*	0.072	2.294
직할시	0.013	0.012	0.366
가구원수	0.020	0.047	1.465
<u>부채관련 태도변수</u>			
신용카드에 대한 태도: 긍정적=1	0.007	0.006	0.220
할부판매금융에 대한 태도: 긍정적=1	0.013	0.013	0.457
상수항	0.201		1.928
R <sup>2</sup> adj.	0.146		
F값	9.819***		

\*P<0.05 \*\*P<0.01 \*\*\*P<0.001에서 통계적으로 有意

효과를 통제한 후 부채부담에 영향을 주는 관련요인을 측정하기 위해 중회귀분석을 행한 결과이다. 소득 및 자산관련변수, 인구통계학적 특성변수 및 부채관련 태도변수에 의한 가계부채부담의 설명력은 14.6%였다.

소득 및 자산관련변수중 가계소득, 금융자산과 부채源의 수는 가계부채부담에 대해 有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가계소득과 부채부담의 관계는 2차함수의 형태로 나타났는데, 즉 가계소득이 증가하면 가계의 부채부담이 감소하며 이때 그 감소폭은 점차 작아짐을 의미한다<sup>4)</sup>. 표준화된 회귀계수( $\beta$ )에 의하면 고려되어진 변수중 가계소득이 부채부담에 미치는 영향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금융자산은 가계의 부채부담에 대해 정(+ )적인 영향을 주었다. 이는

금융자산의 여유를 안고 미래소득을 앞당겨 쓰는 경향을 보이기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또 한편으로는 주택부담과 같이 가계저축을 담보로 한 금융기관이 가계대출제도가 확대됨에 따라 이런 경우에 해당되는 가계들의 영향력도 이에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또한 부채源의 수도 정(+ )적인 영향을 주어 부채源의 수가 많을수록 부채부담도 크게 나타났다. 반면 가계소득의 크기를 일정하다고 가정된 상태에서 가계소득의 안정도가 부채부담에 주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 취업자수는 부채부담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의 인구통계학적 변수중에서 가구주의 직업이 유의미한 변수로 드러났는데, 가구주가 봉급생활자인 경우 보다 일용근로자, 자유직업자, 자영업자 및 기타인 경우 부채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봉급생활자 가계의 경우 가계수입이 안정적인에 따라 합리적인 가계재정관리를 할 수 있기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거주지역도 부채부담에 유의미한 변수로 나타났는데 중소도시거주 가계보다 서울시거주 가계의 부채부담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서 결과인 서울시거주 가계가 중소도시거주 가계에 비해 부채보유확률이 적은 것과 관련지어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다. 서울시 거주 가계는 중소도시거주 가계에 비해 부채보유확률은 적으나, 일단 부채가 있는 경우 부채부담율이 높다. 이러한 현상은 중소도시거주 가계가 私積용통등 적은 금액의 부채이용이 상대적으로 활발한 반면, 서울거주 가계는 주택관련 대출 같은 상대적으로 큰 규모의 용자를 받을 기회가 보다 많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그 밖에 가구주 성별, 연령, 교육수준 및 가구원수는 부채부담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가구주가 30대인 가계가 30세미만가계에 비해 부채보유확률은 높았으나 부채부담에서는 어떠한 연령층과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가정생활주기에

따라 가계소득 및 소비의 수준은 달라지나 이를 단계에 맞게 관리함으로써 부채부담이 특정시기에 유난히 많은 현상을 보이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으로는 가계의 장기계획에 따라 소득이 부족한 시기에 부채행위를 결정, 시행할 수 있을 만큼 우리나라의 신용시장이 탄력적이지 않은 것도 한 원인일 수 있겠다.

두개의 부채관련 태도변수, 즉 신용카드에 대한 태도와 할부판매금융에 대한 태도변수는 가계의 부채보유여부와 마찬가지로 부채부담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V. 요약 및 제언

본 연구는 우리나라 도시가계의 부채보유여부 및 부채부담의 관련요인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분석을 위하여 1990년도 가계금융이용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부채보유여부의 관련요인분석을 위하여 로짓분석을, 월평균가계소득에 대한 월평균부채상환액의 비율로 측정된 부채부담에 대한 관련요인의 분석을 위하여는 회귀분석을 각각 사용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도시가계중 부채를 보유하고 있는 가계는 38.2%였으며, 부채보유확률은 가계소득, 금융자산, 주택소유여부, 가구주 연령, 및 거주지역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둘째, 부채보유가계의 평균부채부담율은 33.99%였고, 부채부담은 가계소득, 금융자산, 부채源 수, 가구주 직업 및 거주지역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른 제언은 다음과 같다. 도시가계의 월평균부채부담은 가계소득의 13.0%였고, 이중 부채보유가계만을 대상으로 할 때 평균부채부담은 33.99%로 나타나 일반 채무상당자들이 위험수위로 제시하고 있는 20%한도를 넘어서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어떤 집단이 부채를 융통할 수 있는 것 자체를 특정집단의 혜택으로 파악하기도 하지만 부채상환에 지출하는 금액이 우선적으로 배분되어야 할 고정지출의 성격을 띠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지나치게 높은 부채부담은 가계재정에 압박을 주어 가계의 소비측면에서 다른 비목간의 불균형을 초래

4) 가계소득 및 가계소득제곱의 회귀계수를 이용하여 계산하면 가계소득이 335만원인 점에서 부채부담이 최하이고 이후 다시 상승하는 2차함수 형태를 가진다. 가계소득이 335만원 이상인 경우는 특수한 경우이니 만큼 여기에서는 가계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부채부담이 감소하는 부분을 일반화하여 서술하였다.

함으로써 가계복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過부채가계의 경우 부채에 대한 일련의 조정작업이 필요하리라 본다. 가계소득의 흐름을 파악하며 다른 소비지출과의 균형을 고려한 부채의 합리적인 운영이 요구되며, 부채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소득수준에 따른 부채부담은 특히 저소득층에서 높았으나 반면 이들 계층의 부채보유확률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저소득층이 담보 및 신용의 부족으로 인하여 필요할 때 융자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부채를 융통한 경우에도 낮은 소득으로 인해 높은 부채부담을 안는 것으로 판단된다. 부채행동이란 가계의 현재소득으로 현재소비를 충당하기 어려울 때 수행하게 되는 경제활동인 만큼 저소득층의 편의에 근거한 대출제도의 개발이 필요하다. 흔히 시행되고 있는 부동산담보 또는 안정된 직업위주의 신용대출제도 외에 이들 저소득층을 위한 무담보대출을 보다 활성화할 필요가 있으며, 융자금 상환방법에 있어서도 융자상환능력에 맞춘 다양한 형태의 개발이 필요하다.

가구주 직업이 봉급생활자인 경우에 비해 일용근로자등 기타직업가구주의 가계의 부채부담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가계수입의 안정성이 가계의 합리적인 재정운영에 얼마나 주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시사한다. 비정기적인 소득원을 둔 가계는 장기적인 재정계획의 수립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부채상환에 있어서도 부담을 가지게 됨에 따라 효율적인 부채활용에 제한을 가진다. 따라서 이들 가계의 경우 수입원을 부분적으로나마 안정화시킬 수 있는 가계 재정관리상의 기술이 요망되며, 정책적 측면으로는 이들을 대상으로 한 저축·대출상품개발 및 가계채무상담을 통한 조정작업이 요망된다.

가계의 부채부담관련행위는 가계부채에 대한 수요가 있어야하고 여기에 부채조달을 가능하게 하는 외부적 여건이 뒷받침되어야 가능하다. 본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 가계의 부채부담관련행위는 가계의 수요에 의한다기 보다는 외부적 여건에 의해 보다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채태도 관련변수는 가계의 부채부담행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며, 가계운영자금의 규모와 관련이 높은

가정생활주기변수나 가구원수도 부채부담행위와 무관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부채조달시 담보조건 또는 신용평가조건이 될 수 있는 가계소득, 금융자산, 주택소유여부등이 가계부채보유 및 부담정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지 30대가구의 경우 他집단에 비해 부채보유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기존의 가계자금지원형태가 주택대출만이 필요한 가계의 수요에 부응할 뿐, 여타 생활자금 등은 가계의 부채수요요구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한다하겠다. 이에 금융기관들은 보다 다양한 형태의 가계대출제도를 확대하는 노력이 요망되며 동시에 가계의 신용평가방법을 개선함으로써 융자욕구가 높은 가계의 수요에 효율적으로 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참고문헌

- 1) 국민은행(1991). *가계금융이용실태조사 1990*.
- 2) 김순미(1987). 도시주부의 금융자산선택행동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3) 김중수·김영희·김진영(1985). 도시가계의 주택금융이용행태에 관한 분석. *한국개발연구* 7(3), 58-84.
- 4) 문숙재(1985). 도시주부의 저축행동에 관한 연구. *한국문화연구원 논총* 46, 237-268.
- 5) 백설희(1984). 도시가계의 저축행동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6) 심 영(1993). 가계부채가 소비패턴에 미치는 영향. *소비자학연구* 4(2), 29-50.
- 7) 양세정·강미나(1993). *가계금융이용실태에 관한 종합적 분석*. 국민가계경제연구소.
- 8) Avery, R.B., Elliehausen, G.E. & Kennickell, A.B. (1987). Changes in consumer installment debts: Evidence from the 1983 and 1986 Surveys of Consumer Finances. *Federal Reserve Bulletin*(October), 761-778.
- 9) Bailard, T.E., Biehl, D.L. & Kaiser, R.W.(1986). *Personal money management, 5th ed.* Chicago, IL: Science Research Associates.
- 10) Bryant, W.K.(1990). *The economic organization of the household*. Lond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 11) Bryant, W.K.(1986). Assets and debts in a consumer portfolio. *Journal of Consumer Affairs* 20(1), 19-35.
- 12) Hira, T.K.(1990). Changes in factors influencing con-